

중국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중국문화의 중추인 중국어와 중국문학에 대해 공부합니다. 어학분야는 고문, 현대문의 해석 및 회화능력의 배양을 기초로 하여 중국문자의 창제와 발전과정 등을 연구하며, 문학분야는 고전문학과 더불어 5,4 운동(20세기 초 중국의 신문화운동)을 시점으로 태동된 신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합니다. 또한 오늘날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중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중국어 관련학과에서는 중국어학에 대한 이론 공부보다는 중국어 회화, 문법, 작문, 관광중국어, 비즈니스중국어, 시사중국어, 통·번역 등 '실용중국어'에 초점을 맞추어 배우게 됩니다.

적성 및 흥미



중국어문학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루는 시대도 매우 포괄적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동양문화에 관심이 있고, 중국의 역사와 급변하는 중국의 현실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이 있다면 중국어문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 중어중문학과
- 중국학과
- 중국어학과
- 중국언어문화전공
- 관광중국어과
- 중국비즈니스전공
- 중국어서비스전공
- 한중통번역전공

취득자격



- **국가자격**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국내여행안내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간자격** FLEX중국어, SNULT중국어, 국제의료서비스코디네이터, 중국어지도사, 한국문학중국어번역사, CUF3중국어번역사
- **해외자격** 중국어능력시험(HSK, CPT) 등

진출직업



- 해외영업원

영업·판매직



- 시인
- 소설가
- 통역가
- 칼럼니스트
- 번역가
- 게임번역가
- 문학평론가

작가



- 신문기자
- 방송기자
- 잡지기자
- 아나운서
- 방송연출가
- 리포터

방송/기자



- 중국어연구원
- 외국어교사
- 학습지교사
- 한문강사
- 한국문화강사
- 외국어학원강사
- 교재 및 교구개발자

교육/연구



- 호텔프론트사무원
- 항공기객실승무원
- 투어컨덕터(해외여행인솔자)
- 크루즈승무원
- 여행안내원
- 여행상품개발자
- 여행사무원
- 관광통역안내원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여행 서비스직



- 한중인력헤드헌터
- 탑승수속사무원
- 외교관
- 출입국심사관
- 자민제직자
- 유학상담자
- 어학원현직코디네이터
- 시장조사연구원
- 무역사무원
- 연세상품사무원
- 마케팅사무원
- 국제협력사무원
- 관리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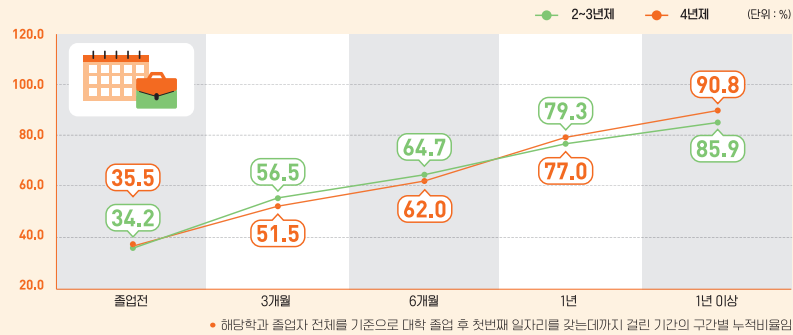
사무직

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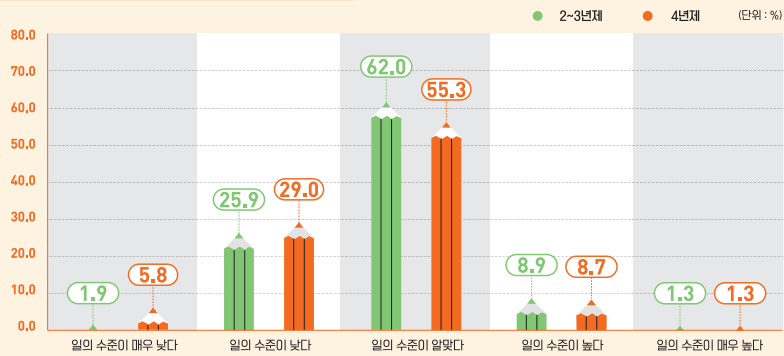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 진출직업(상위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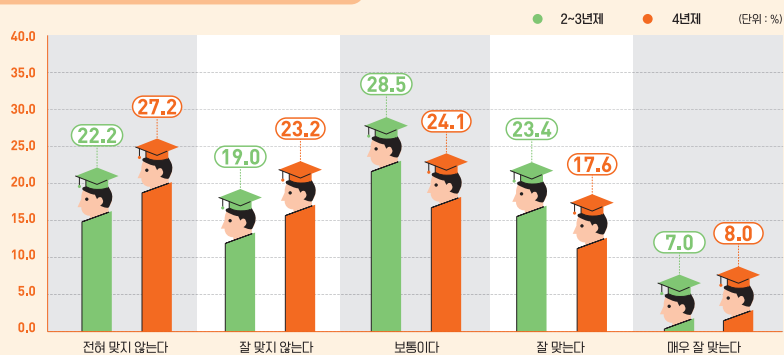
첫 일자리 입직 소요 기간(누적)



첫 일자리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의 일치 정도



첫 일자리 업무내용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



- '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정부공식통계 제327004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매해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대학 졸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함(EX, 2019년도 조사시 2018년 2월 및 2017년 8월 졸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 2014년부터 2018년 전문대 및 4년제, 교육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학과정보에서 제공하는 131개 학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
 - 전체 표본 가운데 매해 조사기준일(9월 1일) 당시 만35세 미만인 경우만 분석하였음.
- 첫 일자리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가 표집틀로 사용하는 교육개발원 취업통계의 졸업년월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대학을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일자리를 말함.
- 본 자료에 사용된 첫 일자리 진출직업의 직업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세분류 기준임.
- 첫 일자리 입직소요기간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조사 기준대학을 졸업 한 이후 첫 일자리에 입직한 시기까지를 개월로 환산하여 구간화함.
- 첫 일자리의 업무수준-교육수준 일치 정도, 업무내용-전공(주전공)과의 일치 정도는 기존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업무 수준과 내용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답한 내용임.